

토틀넘 캡틴 ‘손흥민’ 잔류냐 이적이나…

2015년 부터 꾸준 활약… 내년 여름 계약 종료
사우디·튀르키예 이어 미국 축구클럽 영입설
영국 현지 언론 “손, 이적 서두르지 않을 듯”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틀넘 홋스퍼와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여러 이적설이 도는 손흥민(32·사진)이 미국 메이저 리그사커(MLS)로는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 미리는 6일(한국시간) “토틀넘의 주장인 손흥민이 이번 여름 MLS 로스앤젤레스 FC(LAFC)의 적극적인 구애를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의 영입 관심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 1월 토틀넘과 2026년 여름까지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옵션 계약에 합의해 2015년 8월 토틀넘 유니폼을 입은 이래 11년 동안 활약하게 됐다.

손흥민은 토틀넘에서 2021~2022 시즌 EPL 공동 득점왕(23골), 2020년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 수상의 영예를 맛봤고 팀의 주장으로서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도 경험했다. 하지만 32살이 된 손흥민의 이적설은 끊이지 않는다. 토틀넘이 지난 2월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임대로 데려온 젊은 공격수 마티스텔(20)을 완전 이적시켰고, 최근에는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베테랑 공격수’ 반열에 오른 손흥민의 입지에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부터 사우디를 비롯해 튀르키예, 미국 등 다양한 클럽들의 영입 대상이 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정확한 실체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LAFC가 손흥민을 강하게 원한다는 루머가 돌았다. LAFC에서 활약하던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가 프랑스 리그1 릴로 이적하면서 대체자로 손흥민이 떠올랐다는 보도다. 하지만 영국 매체 더선이 지난 5일 “LAFC가 지루의 공백을 손흥민으로 대체하고 싶어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 1월 또는 1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미리 역시 “손흥민이 LAFC의 관심을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틀넘에서 10년 동안 활약한 손흥민의 주급은 20만 파운드(약 3억7200만원)이다. 이적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적당한 기회를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55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 대회에 출전한 제주 대표 선수들.

제주도청 김유라 ‘금빛 돌려차기’

김민주는 +73kg 은메달… 여자 단체전 ‘준우승’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제주 여자태권도 김유라(제주자치도청)가 금메달을 따내며 전국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유라는 지난 1일부터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55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여자 -49kg급 16강에서 금가은(김제시청)을 2대0으로 가법게 제압한 후, 8강에서 강보라(영천시청, 2:1), 준결승에서 박연진(동래구청, 2:0)을 꺾고 결승전에 올랐다. 김유라는 결승전에서는 황유시(춘천시청)와의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73kg 김민주는 16강에서 박은지(동래구청, 2:1), 8강에서 윤재은(경주시청, 2:0), 준결승에서

김한서(광산구청, 2:0)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정수지(청주시청)에게 0:2로 패해 아쉬운 은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도 제주 자치도청은 뛰어난 팀워크를 바탕으로 준우승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남자 -80kg 이진훈은 방승한(서천군청, 2:0), 최보성(성남시청, 2:0)을 연달아 꺾으며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강민성(수영구청)에게 0:2로 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68kg급 박상현은 8강서 김태웅(대전광역시청)을 2:1로 제압했으나, 준결승에서 최승권(철원군청)에게 0:2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제주도청 고대후 감독은 여자일반부 지도상을 수상하며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역량도 인정 받았다.

위협성기자 yswi1968@ihalla.com

김하성, MLB 복귀 하루 만에 결장

11개월 만에 메이저리그(MLB) 복귀전을 치른 김하성(29·탬파베이 레이스)이 하루 만에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고, 교체 선수로도 출전하지 않았다. 탬파베이는 6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MLB 미네소타 트윈스와 경기를 김하성 없이 치렀다. 김하성은 5일 미네소타전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도루를 올렸다. 김하성이 MLB 경기에 나선 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이던 2024년 8월 19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320일(약 11개월) 만이었다. 당시 김하성은 주루 중 어깨를 다쳤고, 10월에 오른쪽 어깨의 찢어진 관절순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재활 중에 탬파베이와 2년 최대 3100만달러, 보장액 2900만달러에 계약한 김하성은 마이너리그 트리



탬파베이의 유격수 김하성이 5일 미국 미네소타주 타깃필드에서 열린 미네소타전에서 1회 내야 수비를 하고 있다.

플A에서 21경기를 치른 뒤 벤틀리로 올라왔다. 김하성은 MLB 복귀전에서 7회 초 안타를 신고하고, 2루 도루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3루 도루를 시도하다가 오른쪽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나 7회말 수비 때 교체됐다. 탬파베이는 김하성을 부상자 명단(IL)에 올리지는 않았다. 케빈 캐시 탬파베이 감독은 “당분간은 매일 김하성의 몸 상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제주 최고 ‘몸짱’ 김민서 아시아선수권 은메달

제주여성 피트니스 최고 ‘몸짱’ 김민서(제주특별자치도보디빌딩협회)가 처음으로 아시아대회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보디빌딩협회에 따르면 김민서는 지난달 17~19일 아랍에미리트 아즈만에서 열린 2025 IFBB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처음 출전해 피트니스 부문서 은메달을 획득, 한국이 피트니스 부문 종합 3위에 오르는데 기여했다. 김민서는 지난 2024년 제주에서 열린 여자 비키니 -163cm급에서 국가대표들을 물리치고 2위에 오르며 파란을 일으킨 후 비키니와 피트니스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올해 3월 전국 미즈피트니스 선수권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 2025 미스터제주 선발대회에서도 미즈그랑프리를 차지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며 국내 참여 선수로는 유일하게 피트니스 부문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서는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도협회 소속 선수인 남편의 권유로 늦게 운동을 시작, 신소아 전도협회장의 특별지도를 받으며 지난해 동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는 비키니 2위, 피트니스 2위, 마스터즈 피트니스 2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고 선수로 거듭나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 전반기 100만 관중 돌파

10개 구단 중 올시즌 최초

대구 야구팬들의 열기는 달구벌 폭염보다 뜨겁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홈 경기에서 2만4000명의 만원 관중을 모으며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시즌 관중 100만명을 돌파했다. 삼성은 올 시즌 홈 45경기에서 102만 2094명을 동원했다. 한 경기 평균 관중 수도 2만2713명으로 둘 다 1위다.

삼성엔 팀 역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쓰고 있다. 지난해 홈 관중 134만7022명을 모은 삼성은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홈 100만 관중을 돌파했고, 올해는 KBO리그 사상 최초 홈 140만 관중 돌파를 노린다. 삼성을 필두로 LG(90만9362명), 롯데 자이언츠(89만7163명), 두산 베어스(86만5618명), SSG 랜더스(76만711명), KIA 타이거즈(70만4767명), 한화 이글스(67만6959명)를 합쳐 7개 구단이 산술적으로 100만 관중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한도)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기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잔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기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을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사와 심의번호 201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제주청능재활센터

이명전문케어센터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
산학협력교수
전문 청능사
언어 재활사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